

특허심판도 '고객 중심으로' 특허심판원, 대한변리사회와 소통 나서

- 특허청 특허심판원-대한변리사회 간담회 개최(11.19)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11. 19.(화) 10시 30분 대한변리사회 회관(서울시 서초구)에서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 변리사회 회장, 심사심판소송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특허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및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최근 심판청구 및 처리 동향, 무효심판에서의 인용률 변화 추이 등 심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등록된 특허의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소통 및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울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 모임인 변리사회와 심판행정서비스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 라면서 “앞으로 변리사회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붙임: 2024 특허청-대한변리사회 간담회 개최 계획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 부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마정운 (042-481-5879)
		담당자	사무관	최은림 (042-481-8444)

1 추진 취지

- 심판분야 주요고객이며 지재권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회와 협력 강화

2 교류회 개요

- (일 시) '24. 11. 19.(화), 오전 10시30분
 - (장 소) 대한변리사회 회관
 - (참석자)
 - 변리사회 : 대한변리사회 회장 외 분과위원장 등
 - 특허심판원 : 특허심판원장, 심판정책과 마정윤 과장, 한중섭 서기관
 - (토의 안건)
 - 신규제도(심판참고인 제도 등) 소개, 디지털 심판시스템 도입,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공유, 무효심판에서의 인용율 변화 추이 및 등록된 특허의 권리 보호 강화 방안(무효심결 예고제, 심판-조정연계제도 활성화 등)
 - 심판품질제고·심판업무개선을 위한 의견, 심판 처리기간 등에 대한 의견
 - 지재권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심판원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을 위한 실질적·상시적 협의체* 필요
- * 기업의 경우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를 통해 연 2회 교류회 개최

3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0:40	■ 인사	
10:40 ~ 11:50	■ 최근 심판현황 및 심판정책방향에 대한 정보공유, 의견교환 ■ 변리사회·특허심판원간 상시 교류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특허심판원 대한변리사회 임원진
11:50 ~	■ 사진촬영 및 폐회	